

## 안전한 노동! 실 권리! 노동 존중!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

○ 일시 : 2022년 6월 20일(월) 오전 11시

○ 장소 : 민주노총 12층

- 전국 13개 지역 4300명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여건 및 복지실태 조사 결과 발표.
- 20인 미만 사업장 58.2% 휴게실 없음. 50인 미만 사업장 40.6% 휴게실 없음.
- 50~99인 사업장 37.1%, 100~299인 사업장도 37.9%나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.
- 사업장 규모가 작고 저임금노동자, 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 여건 매우 열악.
- 가까운 거리,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휴게 요건 중 가장 중요.
- 공동휴게실, 쉼터 86% 이용하겠다. 중소 영세 비정규 취약영역 노동자 휴게권 쉼 권리 보장 중요.
- 정부, 지방정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휴게시설 의무화 법시행에 맞춰 현실적 대책 촉구.

### 1) 취지

- 지난 2022년 4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 여건 및 복지실태를 조사했고 4천300명의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조사 참여 현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.
- 휴식 시간, 복지제도, 휴게실 설치 여부, 휴게실 상태, 휴게실 요건, 산업단지 공동휴게실, 쉼터 이용 여부 등 설문조사 했고, 20인 미만 사업장 58.1% 휴게실 없어, 작은 사업장, 저임금노동자,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.
- 가까운 거리,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등 휴식 시간,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장에 맞는 휴게 편의복지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.

- 정부는 휴게시설 의무설치가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과 열악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조사 되었습니다.
- 산재 사고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대로 된 쉼(휴식)은 권리입니다. 어떻게, 어떤 환경에서 쉬는가?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‘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’에서 전국 4천300명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. 많은 언론 보도를 요청합니다.

## 2) 진행

- 여는 말 -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
- 실태조사 결과 발표 -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(PPT 발표)
- 발언
  - 발언 1 : 전북지역 금속산업 종사 하청노동자 A씨 전화 연결 (완주일반산업단지)
  - 발언 2 :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(부평국가산업단지)
  - 발언 3 :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서다윗 (서울디지털산업단지)
- 기자회견문 (보도참조)
- 전체 사진